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리 본 스가라 -복음으로 여는 스가라-

스가라4:6, 사도행전 1:8

정윤돈 목사님

* **속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육간의 절대 불가침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적인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과 가정과 가문과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장과 현장과 미래를 위해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레미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실현하여 열매 맺어서 정말로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이 있기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 도전해야 한다. 지난번에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는 말씀을 나누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다. 오늘은 스가라서를 통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며,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항상 이미지와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것이 목표를 잡는 것이다. 나도 강단에 오기 전에 혈압을 잴다. 5년 전에는 150에서 160까지 올라갔는데, 운동하며 120에 80이 되는 것을 꿈꾸고 계속 관리했다. 5년이 지난 오늘 120에 80이 나왔고, 병원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였다. 물론 계속 관리해야 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의 영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혼과 티가 없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결론이 나지 않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흠 없이 보존되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부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 혼과 마음과 생각이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몸과 육과 마음과 생각과 정서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가 된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에덴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그것을 가법계 생 각해서 많은 고통과 문제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황제가 3장, 6장, 11장하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말씀으로 박살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스가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제왕과 저주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갔다. 그런데 스가라는 하나님 앞에 깊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했다. 당연히 축복받고, 당연히 돈도 있고, 아름다운 성전도 지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런데 조금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가 된다.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해 보라.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영과 육에 흠과 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노 시대이다. 흠과 티가 조금만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나도 논문을 쓸 때 띄어쓰기 하나, 점 하나까지 확인했다. 세상의 논문도 흠과 티를 보는데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가라는 답을 준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4:6)” 우리의 노력과 학벌과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보았다. 민사고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후, 애플을 거쳐 현재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입사한 청년의 인터뷰였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일단은 운이 좋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 보좌의 은, 곧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은혜가 따르기를 축원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다 명문대에 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흐름과 시기가 맞아야 한다.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운매가 아주 좋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AI 시대가 열리는 지금,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세את을 뿌렸던 그 결실이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에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며,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이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는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사는 데는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세계 복음화의

그림,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와 환상,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차라리 로봇이 낫다. 지금은 AI와 자율주행으로 직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이다. 미국은 어릴 때부터 저축과 은행, 채권과 주식 등 금융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직접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시킨다. 우리도 시대의 변화를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그저 운에 기대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환상을 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고 헛된 환상만 좇으면 망하는 길이다. 꿈만 꾸는 돈키호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를 구하고, 묻고 조사하며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며,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미래학자는 앞으로 AI 봉건주의 사회가 올 수 있다고 했다. AI 시대에 맞는 자본과 지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이나 능력을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시대를 리드할 전문인 랩넨트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서밋 타임(Summit Time)을 갖고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 계속 공부해야 한다.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들을 때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갈아 가며 듣는다. 내가 그 언어들을 다 잘해서가 아니다. 똑같은 메시지로 다른 언어로 들으면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도 어느 정도 알고 쓰는 것과 전혀 모르고 끌려가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조금만 알면 훨씬 쉬워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철저하게 300%의 준비를 해야 한다. 매일 아침 새벽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며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만들라. 미리 준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지으셨다. 인생을 끌려다 녀서는 안 된다. 매일 점심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만남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고, 매일 밤은 근원적인 치유와 힘을 얻으며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론

스가라 선지자는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환상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며, 이 성전 안에 어떤 복음과 내용을 담아야 할까?”라며 계속 기도했다. 학개가 성전 건물이라는 하드웨어 재건에 집중했다면, 스가라는 그 성전 안을 채울 영적 소프트웨어를 놓고 깊이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셨다. 스가라는 깊은 묵상 속에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성취, 미리 정복의 여마에 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깊은 기도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이 시대가 빛과 같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혼자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은가. 참사랑교회 앞에 물문교 청년들이 있어서 한 번 대화해 보고 싶었다. 한 청년이 한국말을 잘해서 대화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의 모임에도 초청받아 여러 사람과 토론했다. 그들의 주장은 열심히 살고 선행하며 계속 노력해야 구원과 높은 권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전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그러나”고 놀라길래, 제가 그곳의 70대 장로님게 말씀드렸습다. “장로님은 교회 다니셨다면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가르쳐줬나 봅니다. 성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니 똑같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다. 군 생활 때 만난 병사님도 고해와 수행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도를 닦아야 한다고 했다. 나 역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제 말을 다 들더니 그 미국인 청년 두 명도 깊은 감동을 받는 눈치였습다. 그러자 물문교 측에서는 조금 당황했는지 얼른 마무리를 하려 했습다. “시간 약속이 없습니다”면서 (내가 보기엔 약속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저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내보냈습다. 제가 처음에 그들에게 “내가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가고, 내가 잘못 믿으면 나도 지옥에 가니까 우리 서로 깊이 대화해 보자”고 제안했습다. 특히 그 젊고 키 크고 잘생기고 씩씩한 청년은 ‘모태 물문교인이었습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통하고 묵사니 줄 몰랐다가 너무 좋아했습다. 나중에 같이 밥 먹으며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1시간 동안 복음으로 정확하게 때려주니 그 친구가 완전히 흑암에 휩싸인 표정이 되었습다. 다음에 만나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네’라고까지 연락이 없습다. 아아 그쪽 교회에서 “참사랑교회 그 목사 만나지 마라!”라고 광고가 나왔을지도 모릅다. 그래도 저는 계속 쳐들어갈 것입다. 여호와와 증인과의 대화해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토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단들과 대화해 보면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물문교를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 내는 환상을 그렸다. 원래는 제 신분을 숨기고 금요일 저녁 6시마다 그들이 공짜로 가르쳐주는 영어 회화 모임에 가서 프리토킹을 하며 서서히 대화하려고 했다. 꼭 참고 들어주면서 한 번에 박살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대화하다 보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몇 마디 던졌는데 그냥 박살이 나버렸다. 다음에 가서는 그들이 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려 한다. 여러분, 혈암관리도 운동도, 어떤 사역 현장과 전도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환상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내년 3월에는 일본 삿포로로 스기캠프를 갈 계획이다. 세계 서밋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삿포로는 위험한 곳이라 열심히 연습하라는 권면을 받아 준비해 왔고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영적인 환상과 비전을 명확하게 가질 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응답이 있어야 한다.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 수준 낮은 산업인이 아니라, 진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산업 팀을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안에서 만들어 갈 것이다. 서울의 중심인 이 강대국이 우리 교회가 그 위대한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는다.

1. 스가라가 미리 본 8가지 환상

스가라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을 때, 학개가 ‘하드웨어(건물)’를 다시 세웠다면, 스가라는 그 성전 안을 채울 복음의 ‘소프트웨어(내용)’를 만든 제자였다. 하나님은 이 깊은 영적인 기도 속에 있는 스가라에게 복음적인 환상 8가지를 보여주셨다.

1)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말 탄 자들이 서 있는 장면이다. 화석류나무는 이사가 55장 13절의 말씀처럼 절레와 대비되어 회복을 상징한다. 절레는 자수와 황폐를 상징하고 화석류나무는 회복과 평화를 상징한다. 화석류는 향기가 나고 늘 푸른 상록성 나무이다. 스가라는 그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자들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신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게 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백성에게 하늘 보좌의 평화와 축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환상이다. 이 평화와 축복이 이 나라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 환상은 대장장이들이 네 뿔을 꺾어 버리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어 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이다. AI로 그림을 만들면서도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했듯이,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한다.

3) 세 번째 환상은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다. 옛 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측량줄로 크기를 정확하게 재었다. 측량줄은 무너뜨리기 위해 깨는 경우도 있고 재건하기 위해 재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재건되기를 축원한다.

4)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환상이다. 이 환상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우리는 더럽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되고 힘써서 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종교이고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롬3:20).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더 잘해야겠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야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야 한다.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면 문이 열린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요셉이 법사에 형통(창39:1-3)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현장과 직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형통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영적 문제가 있느냐 치유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아다니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 영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새로운 AI 시대에 공부하기도 바쁘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5) 다섯 번째 환상에서 스가라는 금으로 된 등잔대와 그 옆의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 감람나무에서는 계속 기름이 공급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환상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위드(With), 임마누엘(Immanuel), 원니스(Oneness)의 약속이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과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6)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늘에 커다란 두루마리가 날아다녔다. 그 두루마리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환상의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로 이것을 완전히 씻어 버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7)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큰 에베라는 그릇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악리라고 하셨고 그 악을 담은 그릇을 멀리 시날 땅으로 옮겨 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시는 역사를 의미한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현실에서 잘못된 관계가 가져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외모와 육체만 따라가다가 잘못된 관계에 빠지고, 결국 빛과 가정의 문제와 더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한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잘못된 이성관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경고한 길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자녀의 문제도 부모의 잔소리만으로 막을 수 없다. 기도하면서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잔소리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8)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두 산 사이에서 내 대의 범거가 험하게 달려 나가고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인 환상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늦은 잘못 사용하면 전쟁의 도구가 되지만 잘 사용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복음대로 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스가라의 여덟 가지 환상은 하나의 복음적인 흐름으로 연결된다. 첫째, 죄로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찾아오신다. 둘째, 대적의 권세를 꺾으신다. 셋째,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신다. 넷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신다. 다섯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섯째, 죄는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하신다. 일곱째, 죄와 악을 제거하신다. 여덟째,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숙4:6)”

2. 스가라가 미리 본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큰 두 번째에서는 스가라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다.

1) 스가라는 수백 년 전에 영적 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

(1) 첫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다. 스가라 9장 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회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성취되었다. 몇백 년 전에 스가라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미리 본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와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보여 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문제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 꿈과 환상이고 CVDIP의 언약 안에서 주시는 비전과 이미지이다. 그 환상이 있어야

한다. 그 꿈과 이미지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약은 말만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붙잡을 때 말씀이 역사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된 시대를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계속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AI와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이버,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자율주행, 로봇, 생명과학, 양자컴퓨터가 정신없이 다가오는 시대이다. 과거 30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가 3년, 때로는 몇 달 만에 바뀐다. 세상의 엘리트들은 대학 시절부터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한다.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거대한 금융기업들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상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도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와 이름도 비슷한 ‘블랙록’이다. 철저한 흑암 경제인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흑암 경제를 뛰어넘는 ‘화이트 경제’, 빛의 경제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지금 세상의 경제는 다 그들에게 빼앗겼다.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하는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공부뿐이다. 4년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치열하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래의 40년이 완전히 결정된다. 세상의 엘리트들은 이미 대학 시절에 모든 준비를 끝냈다. 우리 교회 램턴트 청년 중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철저하게 공부시키는 동아리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알고 보니 선배들이 여의도 금융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후배들을 위해 길이 길을 만들어 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준비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치열하게 준비하는 이유도 나와 내 자녀만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이다.

2)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온 삼십에 플리는 내용도 미리 예언되어 있다. 스가라서 11장 12절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속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온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속을 삼은지라”라고 말씀한다. 가롯 유다가 온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 말씀이다. 가롯 유다가 구약의 말씀을 깊이 들었었다. “아, 내가 이 길에 빠지리라 안 되겠구나.” 하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니까 저주의 길을 피해 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우리에게도 똑같다. 목회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어도 강단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길로 가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강단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미리 보여 주신다. (1)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다. 스가라 8장 13절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With, Immanuel, Oneness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작은 것도 계속 준비해야 한다. 자작증을 따고 공부해야 한다. 웹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두 그를처럼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정도의 천재가 아니라면 공부를 잘하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 책도 읽고 자작증도 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2) 다음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스가라서 8장 15절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한다. 공동번역에서는 “나 이제 마음을 돌이켜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가운데에 잘해 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겁내지 말라라.”(스가라:15)”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예배에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3) 다음은 율법과 종교가 변하여 복음이 되고,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말씀이다. 스가라 8장 19절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누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기쁨으로 살기를 바란다. 맛있는 것도 먹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결론이 나지 않고 교회와 주일 성수가 인생의 전부만 아니라면, 때로는 굶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훨씬 더 축복이 될 수 있다. 모든 결론을 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4)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스가라 14장 9절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237나라 5천 종족과 땅끝 복음화의 성취를 약속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것이다. 그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한다.

(5) 마지막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스가라 14장 11절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리라”라고 말씀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떠나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과 전쟁과 저주를 받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의 근원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까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

참된 성전 재건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환상과 꿈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축복을 발견한 스가라처럼 모든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스가라 4장 6절에 다시 말씀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라서를 통해서 스가라에게 보여 주신 그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스가라가 받은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실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